

21세기의 건축

Architecture of the 21st Century

박태형 / 재미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3년 뒤에는 21세기의 시작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경제가 2천년대 세계 경제를 주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21세기형 산업구조로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고어부통령이 만사제쳐두고 실리 콘밸리의 기업인들과 정례모임을 갖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첨단산업 혁명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분야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첨단과학 기술혁명을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실용화하여 각 산업부문의 선두대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하여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경제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이끌어내야 하는 건축인들은 앞으로 3년간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정신없이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고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온 한국의 건축 산업부문이 21세기 문턱 앞에서 그냥 주저앉으려는 듯, 국내외에서 불황과 부실의 끝없는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사뭇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부실로 외면을 당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건축물량 확보에서 왜 뒤처지고 있는가? 우리 건축부문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21세기는 건축 기술과 경영 혁신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를 코앞에 둔 우리 건축인들은 선진국의 건축업 분야 기업들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부문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오토메이션(Automation)의 수용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여 모든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컴퓨터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급기야 디자인 혁명, 자동화의 혁명을 가져왔다. 상업용 건물을 비롯하여 주택의 건축에 디자인 혁명과 기술혁명이 미친 여파는 실로 몇 년 사이에 엄청나다. 각종 첨단 자동화 제품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건물, 주택의 자동화 비율은 엄청난 속도를 보이면서 늘어나고 있다. 첨단 산업부문들의 큰 성장은 실제로 이와같은 첨단 산업부문 제품들을 장착한 건물, 주택들의 건축수요를 더욱 늘려나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건축산업의 강점이 있다. 이 강점을 그대로 21세기의 세계 건축산업 부문을 주도해 나가는데 연결시키는 것이 미 건축산업의 21세기 전략인 것이다.

첨단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와 연결된 건물, 주택의 오토메이션은 인간이 건립된 건물에 단순히 입주하여 생활, 주거, 업무를 영위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건축부문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경쟁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건축부문에 연결하여 보다 건물 사용자나 건축주가 주거, 업무 생활 공간과 상호 연결되어 사용자의 통제 폭을 늘려 줄 수 있는 나에 달려 있다. 사용자가 주거공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을 통하여 공간을 통제하는 적극적 인터페이스

(Interface) 환경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곧 자동화 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대중화를 위한 제품개발의 결실이 그대로 건축부문에 수용되어 건물사용자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건축 상품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명, 보안, 오락, 에너지 관련 자동화 장비들이 건축 및 설계 단계에서 첨단 종합 건축물의 필수 구성요소화가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건축부문에 살아 남기 위해선, 첨단 자동화 기술부문의 수용을 앞장서서 받아들여 건축수요를 단순히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 창출하여 나갈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분야야말로 20세기까지의 건축산업 분야가 새로운 첨단 전자통신분야와 접목되어 발전하는 시대인 21세기의 건축업 발전 방향의 지표이다. 주택 자동화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음성 명령을 통한 각종 주택 장비들의 통제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와서 이의 보편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화상, 음성 데이터 전송능력이 날로 뛰어나게 진행되므로써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에 보안 카메라를 달거나,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전세계 어디에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택, 상업용 건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IBM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전세계 어디에선지 인터넷을 통하여 보안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이제는 주택, 건물공간이 보다 건축주나 사용자의 통제를 받고 원하는 다목적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건축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이제는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 확보라는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면서 커뮤니케이션망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 건축기술의 한국적 수용

첨단 자동화 시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각종 건축방식의 한국적 수용과 더불어 더욱 빛을 볼 수 있다. 즉 환경친화적 건축, 미국식 합리적 전원주택, 조립식 주택 등 미래 건축양식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람직한 건축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국제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중산층의 확대와 더불어 건축업 종사자들은 이제 단순히 아파트나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상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격적인 미국식 전원주택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식 전원주택이라고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택들은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부족하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수요에 대응하려는 한국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

산층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마도 21세기에는 빌게이츠가 마련한 자신의 집, 꿈의 궁전은 단순히 재벌 등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전원과 첨단 과학기술장비가 연결된 자신의 전원주택을 마련하였다. 이곳에는 미국식 전원주택공법과 첨단 과학문명의 정수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다. 이와같은 미래상품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또하나의 건축분야에 대한 불신요소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밖에는 되지 못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이 미국식 건축양식을 배워가고 있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주거환경에 속한 일본의 건축계에서 왜 미국식 공법 및 주택 건축양식을 배워가려고 하는가? 미국식 주택 건축 양식이 갖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일본식 다미 양식과 결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도 주택용 목재건축양식이 콘크리트 건축문화의 지배와 아파트 공급으로 뒤로 밀려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포화상태는 새로운 상품개발, 그것도 더욱 중산층 이상의 기호에 어필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필요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식 주택 건축양식 중에서 한국적인 전원주택 건축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건축업체와 공동으로 각종 기술교류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첨단 과학기술들을 그대로 건물, 주택 건축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택공간까지 효율적인 공법에 의해 건축된 주택이야말로 21세기 건축시장의 주 상품이 될 것이다. 결국 건축분야에 있어서 첨단 자동화 시설 및 기술, 선진 건축공법에 있어서 우수한 장점들을 수용하여 이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기업만이 21세기의 세계 건축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선두그룹에 끼게 될 것이다.



21세기 자동화 미래주택